

# 중기 10명 중 6명 “주52시간제 준비 끝”

### 반면 39% “준비 못해”...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들 중 83.9%도 “준비 못해”

###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주된 이유로 꼽아... 10명 중 5명 “계도기간 연장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율 및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조사대상 : 중소기업 500개사, 조사기간 : 2020. 10. 26 ~ 11. 6)를 실시했다.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 중 39%는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만을 대상(218개사)으로 산출한 결과 83.9%의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주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구인난’(38.5%),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 관련해 올해 말까지 부여된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6.0%,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44.0%로 나타났다. 다만,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218개사)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한 결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 다음으로 ‘1년 이상’ 39.3%, ‘6개월 이상’ 12.1%, ‘1년 6개월 이상’ 7.9%로 조사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상여과가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일부 해소될 것’은 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은 20.0%로 50% 이상의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주52시간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가 개선되어도 주52시간으로 인한 현상여과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 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 31.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상여과 보안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 33.0%,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빈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 응답이 30.4%,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는 22.6%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팬데믹 발생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업무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올해도 ‘케셈’ 창업지원 전기안전공사 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민간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펼친 케셈(KESM : Kesco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창업지원 사업이 올해도 결실을 이어나갔다.

2018년 첫 지원 사업을 시작한 후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케셈(KESM) 창업지원 사업에는 작년 7개사에 이어 올해는 6개사 39여명이 창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사는 16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올해 케셈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업체 대표들과 함께 창업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에 필요한 법·제도와 절차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김관중 기술이사는 “민간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창업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전기분야 설계, 감리 등 지원업종을 확대하고 시니어·청년 구인 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휴토람·농지은행 정보 공유

# 농지 구하기 더 편리해진다

### 농진청-농어촌공, 오늘 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두 기관의 대표 서비사인 ‘휴토람’과 ‘농지은행’의 정보를 연계해 국민이 농지를 편리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7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체결한다.

‘휴토람’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웹 시스템으로 논, 밭의 토양 특성 정보와 알맞은 비료 추천량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작물별 토양적성도(64작물), 토양환경지도(배수 등급, 피에이치(pH) 등 55종), 비료사용처방시스템(226작물), 토양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맡기면,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매매/임대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농지 매매나 임대를 원할 경우 “농지은행통합포털(www.fto.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기준 총 3만8,067건, 73만2,988필지의 매매와 임대거래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휴토람과 농지은행의 정보를 연계·융합해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정책을 지원하고 농지 선택 등 영농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농지은행은 휴토람의 토양정보와 작물별 토양적성도 정보 등을 농지은행통합포털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농지를 구할 때 토양 특성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은행통합포털과 휴토람을 연계해 농지를 구한 국민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두호 원장은 “두 기관의 대표 대국민 정보 제공 서비스가 만나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를 임대·매매할 때 토양정보를 추가로 확인함으로써 농지 이용 효율을 높여 국민편익 증대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와 생활산업진흥원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0 킨텍스 메가쇼’ 연계 프로모션 행사에 참여해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를 접목한 전북 공동 세일즈관을 운영했다.

# 차별화 마케팅으로 구매계약 줄이어

### 전북도-생진원, 킨텍스 메가쇼 연계 프로모션 행사 참여

### ‘슬기로운 외식생활’ 등 유행 트렌드 접목 세일즈관 운영

### 9억4800여만원 납품 계약성과·현장매출 5200여만원 달성

전북도와 생활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0 킨텍스 메가쇼’ 연계 프로모션 행사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슬기로운 외식생활’과 ‘아빠는 출장중, 엄마는 요리중’ 컨셉으로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를 접목한 전북 공동 세일즈관을 운영하고, 도내 전통식품 및 농식품 기업 10여개사의 B2B/B2C 공동마케팅을 통해 9억4,800여만원의 납품 계약성과와 현장매출 5,200여만원 등 총 10여억 원의 판로개척 성과를 올렸다.

‘2020 킨텍스 메가쇼’는 수도권 600만 실속과 주부를 타겟으로 구매력이 매우 높은 지역에서 매 시즌별로 개최돼 B2B와 B2C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유망 전시회로서, 건강식품, 발효식품, 간편식품, HMR식품 등 도내 우수 농식품 기업들의 유망식품의 수도권 진출을 위해 생진원이 별도의 전북 공동 세일즈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전북도와 생진원은 참가기업의 수도권 판로확보와 성과 증대를 위해 기존 제품의 개선, 디자인 리뉴얼과 관련 소포장 등 참가사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전컨설팅으로 준비도를 높이고, 현장 프로모션 운영의 노하우 등 기업의 비즈니스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한 차별화 마케팅으로 행사를 운영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 달 참여한 선택 메가쇼 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도 각 참가기업에

서도 재미있고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제품으로 리뉴얼한 도내 농식품 기업 제품들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아리울수산의 ‘밭도둑이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서해명물 황금박대’, ‘밭다’의 ‘아! 테스형 뷰음밥 너무 맛있어’, 향토자원개발연구소의 ‘지친 당신에게 무조건 무조건이야’, 더고은의 ‘꿀꿀꿀고구마 완전 맛있구마’ 등 재미있고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도내 농식품기업의 제품들이 관람객은 물론 바이어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으며 열띤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더올은협동조합(쌍화차), 씨엠에프엔비(옥수편), 나눔푸드(홍삼), 디자인농부(건강선식), 버섯마루(목이버섯 피클), 아리울현푸드(김치), 덕유(머루주), 예미담(부각), 선영이네(김치), 산마루(누룽지), 이고장식품(액상차) 등 참가기업의 다양한 제품들도 내방한 관람객과 바이어의 큰 관심을 받아 현장판매 ‘완판’ 과 더불어 향후 상담결과에 따라 추가 납품을 위해 준비중이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0년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공공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 공공구매 우수기관 ‘인정’

### 국민연금 대통령 표창 수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0년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공공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구매 제도’는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로, 중소기업기업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열어 공공구매 증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공단은 구매실적 집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부 성과평가 항목에 우선구매 실적 포함하는 등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모든 구매·계약 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항목에 대

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94.2%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정부 권장목표율(80%)을 초과달성했다.

아울러, 공단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공공구매 설명회 개최’, 지역내 소상공인의 생산물품을 판매하는 위한 ‘연금이네 금요 장터 운영’,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를 돕기 위한 ‘동반성장물 도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더욱 확대하고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북기계공고·원광정보예고, 창업경진대회 본선행

###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우리지역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원광정보예고등학교가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부가 주최하고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의 연계행사로, 오늘 ‘청소년 비즈쿨 주간’ 선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 행사를 비대

면으로 진행하면서 비즈쿨 랜선 원정대(슬로건: 랜선타고 같이UP 가치UP)를 주제로 정했다.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은 꿈·끼·도전·진취성 등 기업가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청소년 비즈쿨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 기업가정신·창업 축제’로 올해는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은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창업경진대회 (COMEUP BizCool)’. 이는 전국 487개 비즈쿨학교의 창업동아리 중 예선을 통한 중학생 6팀과 고

등학생 14팀이 결선에 진출해 우열을 가리는 자리다.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가방 끄는 사람’이라는 아이템은 기존 여행용 캐리어를 서랍 형태로 설계해 간단한 터치만으로 여단을 수 있는 서랍형 캐리어를 창안했고, 원광정보예고등학교의 ‘씨밀레’라는 아이템은 손쉬운 버스 하차벨 연동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차 정류장을 지정하면 원격으로 하차벨을 누를 수 있는 비접촉 하차 시스템인 앱을 구상해 결선에 진출했다. /김윤상 기자

## 하이트트로 김장김치 나눔

하이트트로(대표 김인규)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월동 준비를 돕기 위해 ‘2020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 부산, 창원, 광주 소재의 사회복지기관 54곳을 비롯해 소방유가족 열 다섯 가정에 김장김치 총 2천 가구분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 창원, 광주 지역은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부산 지역은 26일에 일괄 전달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완제품 김치’를 구입, 지원하기로 했다. 완제품 김치는 지난군에 위치한 소규모 김치공장에서 구입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원주=이종복 기자